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 및 부사절로의 의미 확장 연구

이지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A Study of Internally-Headed RCs Focusing on the Formal Restrictions and the Semantic Extension to Adverbial Clauses

Ji-Eun Lee[†]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subordinate clauses marked by ‘*-un kesi*’ and ‘*-un kesul*’, which function as internally-headed RCs and adverbial clauses. It begins by surveying the restriction in the formation of internally-headed RCs and describes how this restriction connects to the semantic extension of internally-headed RCs to adverbial clauses. A search is then conducted for examples of subordinate clauses marked by ‘*-un kesi*’ and ‘*-un kesul*’ when they function as adverbial clauses. The result shows formal and semantic similarities to the internally-headed RCs. This study contributes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un kesi*’ and ‘*-un kesul*’ by mapping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subordinate clauses marked by ‘*-un kesi*’ and ‘*-un kesul*’.

Keywords: *-un kes*, internally headed RCs, adverbial clauses, first-hand knowledge, semantic extension

1. 서 론

본고는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¹⁾²⁾ 특별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037282).

** 이 논문은 2019년 7월에 열린 제196차 국어통사론 집담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은 것’이와 ‘은 것’을’에서 ‘것’이와 ‘것’을’이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은 게’와 ‘은 걸’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2) 본고에서 활용한 검색 엔진 및 말뭉치는 다음과 같다.

- 구글 검색
-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및 문어 말뭉치
- 2018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등급화 연구를 위해 이삼형 외 13인의 연구원들이 구축한 구어 및 문어 말뭉치

[†] Corresponding author: jieunlee@khu.ac.kr



Copyright © 2021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under CC BY-NC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내핵관계절과 부사절로 쓰인 ‘-은 것이’ 구성과 ‘-은 것을’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의 예는 (1), (2)와 같다.

(1) 내핵관계절로 쓰인 ‘-은 것이’, ‘-은 것을’ 구성

가. 성철이 따라 나오려는 것을 밀어붙이고 나왔다. (21세종말뭉치, 문어)

나. 고양이가 방에서 놀던 것이 갑자기 죽었다. (Kim, Y.-B., 2002, p. 543)

(2) 부사절로 쓰인 ‘-은 것이’, ‘-은 것을’ 구성

가. 이제 벼가 노랑게 익은 것이 완전한 가을이네요. (구글)

나.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삼형 외, 구어)

먼저 내핵관계절의 예를 살펴보면, 예문 (1가)의 경우, 관계절과 주절의 공유 논항인 ‘성철’이 주격조사 ‘이’로 표시되어 있다. 공유 논항이 관계절에서는 주어 역할을, 주절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공유 논항이 관계절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핵관계절과 달리 내핵관계절은 ‘-은 것’과 같이 명사절 표시 전략으로 인코딩되며, ‘-은 것’ 뒤에 공유 논항이 주절에서 갖는 문법 역할에 따라 격표지가 붙는다. (1가)의 경우, 공유 논항이 주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조사가 제시되어 있다. (1나) 역시 내핵관계절의 예로, 공유 논항인 ‘고양이’가 관계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격 조사 ‘이’로 표시되어 있다.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은 외핵관계절과 마찬가지로 공유 논항의 외연을 좁히거나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데, (1가, 나)의 경우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이 공유 논항에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다음으로, (2)에 제시된 예들은 부사절로 쓰인 ‘-은 것이’, ‘-은 것을’ 구성으로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공유 논항이 상정되지 않는다. (2가)의 경우, 종속절에 제시된 내용이 화자가 직접 관찰해서 얻은 정보, 즉, 직접 지식인 것으로 보인다. 주절에 제시된 내용은 이러한 화자의 직접 지식에 근거하는 것으로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된다.⁴⁾ (2나)의 경우, 종속절이 화자의 직접 지식을 나타내지 않으며,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는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핵관계절로 쓰인 ‘-은 것이’, ‘-은 것을’ 구성과 부사절로 쓰인 ‘-은 것이’, ‘-은 것을’ 구성 사이의 유사성이다. 두 구성은 종속절이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되어 있다는 형태적 닮음 외에도 산발적으로나마 의미적 유사성을 보인다. 가령, 내핵관계절의 예인 (1가)의 경우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양보나 시간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며, 종속절에 기술된 내용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으로 해석

3) 내핵관계절의 담화기능은 이지은(2020)을 참고할 수 있다.

4) 두 절이 연결되는 층위를 의미 영역(the content domain), 인식 영역(the epistemic domain), 화행 영역(the speech-act domain)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2가)에서 관찰되는 ‘이유’는 인식 영역의 이유로 볼 수 있다(Sweetser, 1990; Lee, 2017 참고).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모든 내핵관계절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나)의 경우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도 있겠으나, 종속절에 기술된 내용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및 부사절이 보이는 형태적 닮음과 의미적 유사성은 이 두 구성을 나란히 놓고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고는 형태적 닮음을 보이는 두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의미적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두 구성 모두에서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고, 종속절이 직접 지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특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점은 아래의 세 질문으로 요약된다.

첫째,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둘째, 내핵관계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 및 절 연결 의미의 종류는 무엇인가?

셋째, 내핵관계절과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부사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 및 절 연결 의미의 종류는 무엇인가?

본고는 2장에서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3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이 주절에 대해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를 갖는 것과 내핵관계절 중 직접 지식을 나타내는 예가 관찰되는 것 모두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 4장에서는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이 나타내는 절 연결 의미의 종류 및 직접 지식에 대한 논의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부사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해당 구성에서 직접 지식이 관찰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한 가설을 덧붙인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고는 ‘은 것이’와 ‘은 것을’이 문법화되어 표시하는 의미·기능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연구의 예비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밝힌다. 특별히 3장과 4장은 작례가 아닌 말뭉치 등을 통해 모든 예들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5장의 내용은 분량을 생각할 때 개별 논문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 중 일부를 보이는 정도로만 다루었다.

2.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

2.1. 선행연구 검토⁵⁾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서 발견되는 절 연결 의미는 내핵관계절의 형성제약으로

5) 해당 절은 Lee(2021)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간주되어 연구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에는 Kuroda(1976), Kim, Y. -B.(2002), Kim, M. -J.(2008)이 있다.

먼저 Kuroda(1976)는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서 관찰되는 의미적 특성을 의미적 관련성 조건으로 부르고 이를 내핵관계절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3) 의미적 관련성 조건(the relevancy condition)

내핵관계절이 정문이 되려면, 주절에 제시된 화용적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방식으로 화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Kuroda, 1976, p. 270).

의미적 관련성은 (4)에서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5)에서처럼 두 사건이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혹은 목적이나 동기를 나타냄으로 만족될 수 있다.⁶⁾

(4) Taroo-wa ringo-ga sara-no ue-ni
 타로-주제 사과-주격 접시-속격 위-처격
 atta-no-o totte, poketto-ni ire-ta
 있다-명사화소-목적격 집다 주머니-처격 넣다-평서형
 ‘타로는 사과가 접시 위에 있는 것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Kuroda, 1976, p. 269)

(5) Taroo-wa Hanako-ga kinoo ringo-o sara-no
 타로-주제 하나코-주격 어제 사과-목적격 접시-속격
 ue-ni oite oita-no-o totte, ...
 위-처격 놓다 놓다-명사화소-목적격 집다
 ‘타로는 하나코가 이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제 사과를 접시 위에
 놓아 둔 것을 집었다.’ (Kuroda, 1976, p. 272)

Kuroda(1976)는 (6)의 예의 경우, 어제 하나코가 접시 위에 둔 사과가 여전히 그 접시
 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의미적 관련
 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보았다.

6) Kuroda(1976)는 하나코가 접시에 둔 사과가 타로를 위한 의도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4)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코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타로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시
 위에 사과를 놓아두는 것이다. 아마도 타로가 매일 점심으로 사과 하나를 먹는 등의 상황이다(Kuroda,
 1976, p. 272).”

- (6) #Taroo-wa Hanako-ga kinoo ringo-o
 타로-주제 하나코-주격 어제 사과-목적격
 sara-no ue-ni oita-no-o totte, ...
 접시-속격 위-처격 놓다-명사화소-목적격 집다
 ‘타로는 하나코가 어제 사과를 접시 위에 놓은 것을 집었다.’
 (Kuroda, 1976, p. 271)

(7)의 경우는 누군가 멀리서 찾아온 것이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할 만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문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타로와 그 방문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용적 지식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 (7) #Taroo-wa Hanako-ga harubaru tazunete kita-no-o nejihuseta.
 ‘타로는 하나코가 멀리서 그를 찾아온 것을 바닥에 때려 눕혔다.’
 (Kuroda, 1976, p. 273)

Kuroda(1976, p. 275)는 내핵관계절이 보이는 의미적 관련성 규칙은 내핵관계절이 주절과 관련된 것처럼 해석될 것을 요구하므로 부사절과 유사해 보이나,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부사절의 함의는 내핵관계절 구성의 본유적 특성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제시된 사건에 관계된 개인들에 대한 화용적 지식이 부사절 함의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Kim, Y. -B.(2002)은 Kuroda(1976)에서 의미적 관련성 규칙이라고 부른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정교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Kuroda(197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내핵관계절과 주절에 기술된 두 사건은 시간적/공간적 겹침 혹은 공간적 겹침에 의해서로 긴밀히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전자의 예는 (8)에, 후자의 예는 (9)에 제시되어 있다.

- (8) 행인이 달리고 있는 것을 물었다. (Kim, Y.-B., 2002, p. 556)

- (9) 마리는 사과가 어제 떨어진 것을 오늘 아침에 집어 들었다. (Y.-B. Kim, 2002, p. 556)

Kim Y. -B.(2002, p. 554)은 특히 공간적 겹침을 내핵관계절의 최소 규약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개체 층위 술어가 주절이나 내핵관계절의 서술어로 사용되는 것에 제약을 가한다고 하였다. 개체 층위 술어는 사건의 자리(the place of event)를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10가)는 주절 술어 자리에 개체 층위 술어가 나타난 예로 Kim, Y. -B.(2002)에서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이 내핵관계절로 해석되는 경우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11가)는 내핵관계절에 개체 층위 술어가 나타난 경우로 해당 예 역시 비문으로 판정하였다.⁷⁾

- (10) 가. #강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사랑한다.
나. 강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때렸다.
(Y.-B. Kim, 2002, p. 554)

- (11) 가. *존이 영리한 것을 괴롭혔다.
나. 존이 영리하게 구는 것을 괴롭혔다.
(Y.-B. Kim, 2002, p. 555)

그러나 아래 (12)의 예에서 공간의 겹침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2) 배를 건조한 것을 부수었다.
(Y.-B. Kim, 2002, p. 556)

이를 설명하기 위해 Kim, Y. -B.(2002)은 결과 대상(resultant theme)을 도입하는데, 이는 성취된 사건의 정점의 결과물(an object resulting from the culmination of an accomplished event)로 정의되며, 성취동사나 완성동사의 경우 결과 대상을 통해 내핵관계절이 주절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 Kim, Y.-B.(2002)은 공간적 겹침과 결과 대상의 개념을 통합하여 화용론적으로 두드러진 논항(a pragmatically conspicuous argument)이란 개념을 제시하는데 무엇이 화용론적으로 두드러진 논항인지는 서술어의 상적 특성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 성취동사나 완성동사가 내핵관계절에 쓰이면 결과 대상이 화용론적으로 두드러진 논항으로 보았다. 반면, 행위동사나 존재동사가 내핵관계절에 쓰이면 화용론적으로 두드러진 논항은 장소 논항(a location argument), 즉, 사건의 시공간적 자리를 위한 논항(an argument for the spatio-temporal location of the eventuality)으로 보았다.⁸⁾

7)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 (11가)의 예문에 대해 세 명의 한국어 화자에게 문의한 결과 세 명 모두 정문으로 판단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본 연구자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구문을 포함해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정문성 판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가)의 경우, 정문성 정도가 40.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국어학을 전공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학력의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문성 정도가 34.4%로 집계되었다. 내핵관계절의 정문성 판단 테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ee(2021)를 참고할 수 있다.

8) Kim, Y. -B.(2002)의 장소 논항(a location argument)은 Kratzer(1995)에 기초한 것이다. Kratzer(1995, pp. 125-126)에 따르면 장면 층위 서술어는 서술된 사태의 시공간 장소(spatio-temporal location)를 위해 추가적으로 ‘Davidsonian’ argument place (Davidson, 1967)를 가지는 반면, 개체 층위 술어는 이 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Kratzer는 (1a)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시공간 위치(spatio-temporal position)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앞의 두 논의를 발전시켜 Kim, M. -J.(2008)은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문법적 조건과 의미적 조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의미적 조건은 두 절 사이에 ‘시간/환경’, ‘이유’, ‘양보’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13가)의 경우 ‘시간/환경’ 혹은 ‘이유’의 관계가, (13나)의 경우 ‘시간/환경’의 의미가, (13다)의 경우 ‘양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⁹⁾

(13)¹⁰⁾ 가. 존은 사과가 탁자 위에 있는 것을 집어 들었다. (M.-J. Kim, 2008, p. 112)

나. 존은 손님이 역에 도착하신 것을 호텔로 모시고 갔다. (M.-J. Kim, 2008, p. 112)

다. 존은 빌이 먼 곳으로부터 그를 찾아 온 것을 때려 눕혔다. (M.-J. Kim, 2008, p. 109)

Kim, M. -J.(2008)에 제시된 문법적 조건은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temporary state)를 나타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어휘상뿐만 아니라 문법상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Parsons(1990)에 제시된 진행 중 상태(in-progress state)와 목표 상태(target state)를 일시적 상태로 보았다. Parsons(1990)의 진행 중 상태는 문장에 제시된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참으로 드러난다. 가령, *John is throwing a ball*에서 던지는 동작이 진행 중인 동안에 존과 공은 모두 진행 중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존은 던지는 상태에, 공은 던져지는 상태에 있다. 마찬가지로, 완료된 문장은 서술어가 끝점있는 동사(telic

(1) a. **Always when Mary knows French, she know it well.*

b. ALWAYS [KNOW (M, FRENCH)] [KNOW_WELL(M, FRENCH)]

(1a)에서 개체 층위 술어 *know*는 (1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장소 논항(a location argument) 혹은 장소 변항(locational variables)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1a)는 비어있는 양화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vacuous quantification[‘for every quantifier Q, there must be a variable x such that Q binds an occurrence of x in both its restrictive clause and its nuclear scope. [Kratzer, 1995, p. 131]’])를 어긴다.

(2a)에서와 같이 개체 층위 술어 *know*가 장면 층위 서술어 *speak*로 대체되면 문장은 정문이 된다.

(2) a. *Always when Mary speaks French, she speaks it well.*

b. ALWAYS s[SPEAK (M, FRENCH, s)][SPEAK_WELL(M, FRENCH, s)]

Kratzer에 따르면 이는 장면 층위 서술어는 사태의 시공간 자리를 위한 추가적인 논항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b)의 S가 시공간 자리를 위한 추가적인 논항 혹은 장소 변항을 나타낸다. 장소 변항은 비어있는 양화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vacuous quantification)를 충족시킨다.

9) 본고의 관점에서는 (13가, 나)의 두 절 사이에는 ‘시간’,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13다)의 두 절 사이에는 ‘시간’,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설정될 수 있다(3.3.1 참고).

10) (13다)는 Kuroda(1992, p. 151)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Kuroda(1992)와 Kim, M. -J.(2008)은 (13다)가 특정한 화용적 지식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만 정문이 됨을 주장하였다(본문의 예문[7] 참고). 가령, Kim, M. -J.(2008, p. 109)는 모두가 존이 때때로 난폭해지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13다)에 묘사된 상황이 발생 하던 날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13다)의 예문이 정문이 된다고 하였다.

verb), 즉, 완성동사나 성취동사일 때 목표 상태를 나타낸다. 목표 상태는 문장에 제시된 사건이 정점에 달한 이후의 직접 목적어의 상태를 가리킨다. 진행 중 상태와 함께 목표 상태도 일시적 상태인데 이는 제시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John has thrown a ball onto the roof*에서 공은 일시적 상태에 있는데 이는 공이 지붕 위에 있는 상태는 공이 제거되면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Kim, M. -J.(2008, p. 103)에 제시된 바처럼 진행 중 상태는 서술어의 어휘상과 상관 없이 진행 중인 경우에 얻어질 수 있다. 반면, 목표 상태의 경우 서술어가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진행 중 상태에 있는 모든 사건 참여자들이 일시적 상태에 있는 반면, 목표 상태에서는 증가적 대상 논항(an [incremental] theme argument)(혹은 Kim, Y. -B.[2002]에서 제시된 결과 논항[a resultant theme])만이 일시적 상태에 있다.

Parsons(1990)를 바탕으로 M.-J. Kim(2008)은 일시적 상태에 있는 논항만이 내핵관계절의 공유 논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14가)의 경우, 완료된 문장이나 서술어가 끝점있는 동사, 즉, 완성동사나 성취동사가 아니므로 목표 상태를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¹¹⁾

- (14) 가. *존은 마리가 어제 인형을 하루 종일 가지고 논 것을 오늘 내다 버렸다.
나. 존은 마리가 어제 인형을 만든 것을 오늘 내다 버렸다.

11) 아래의 예들은 끝점있는 동사가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도 아닌데 비문이 되지 않는 예로 보인다.

- (3) 가. 마리는 존이 어제 이불을 덮고 잔 것을 빨았다.
나. 마리는 존이 어제 옷을 입었던 것을 빨았다.
다. 마리는 존이 어제 책을 보던 것을 가져다 조금 읽어 보았다.

그러나, 위의 예에 제시된 서술어 ‘자다’, ‘입다’, ‘보다’의 경우 끝점있는 동사가 아니지만, ‘덮고’, ‘던’과 같이 공기하는 요소에 의해 ‘이불’, ‘옷’, ‘책’이 목표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래 (4)의 예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4)의 경우 내핵관계절 안에 (3)과 동일하게 ‘자다’, ‘입다’, ‘보다’의 동사가 서술어로 나타남에도 (3)에 비해 예문의 수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가. ?마리는 존이 어제 담요 위에 잔 것을 빨았다.
나. ?마리는 존이 어제 옷을 입은 것을 빨았다.
다. ?마리는 존이 어제 책을 본 것을 가져다 조금 읽어 보았다.

M.-J. Kim(2008)에서도 (5나)와 같이 공기하는 요소에 의해 내핵관계절이 목표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보였다.

- (5) 가. 존은 마리가 달린 것을 물을 주었다.
나. (?)존은 마리가 달리기를 막 마친 것을 물을 주었다.
(Kim, M. -J., 2008, p. 105)

(5가)의 경우 내핵관계절에 끝점있는 동사가 아닌 ‘달리다’가 사용되었고 진행상태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반면, (5나)의 경우 ‘마치다’가 사용되어 ‘마리’가 목표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내핵관계절의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Kim, M. -J.(2008)은 내핵관계절을 개체 유형(the entity type)과 사건 유형(the event type)으로 나누는데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하는 문법조건은 모든 내핵관계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시간/환경’, ‘이유’, ‘양보’ 관계가 성립되는 의미적 조건은 사건 유형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 (15) 가. 존은 마리가 빵을 만든 것을 먹었다. (개체 유형)
- 나. 존은 마리가 나가는 것을 붙잡았다. (사건 유형)

Kim, M. -J.(2008)은 개체 유형은 내포절에 제시된 사건이 정점에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새로운 담화 개체를 제시하거나 소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개체 유형의 경우, 내포절과 주절 사이의 밀접한 의미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기능이 아니므로 의미적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사건 유형은 내포절에 의해 제시된 사태와 부분-전체의 관계를 갖는 사태의 소개가 주기능인 것으로 보았다.

내핵관계절이 나타내는 의미 제약이 외핵관계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바탕으로 Kim, M. -J.은 내핵관계절을 명확한 연결자 없이 두 절이 연결된 복합 구성으로 본다. 이어 유사한 예로 Hale(1976)에 언급된 왈비리어의 인접 관계절(adjointed relative clauses)과 Stump(1985)에 언급된 영어의 자유 부가어 구성(the free adjunct construction)을 제시한다.

- (16) 자유 부가어 구성

가. ‘환경’ 혹은 ‘이유’ 자유 부가어

Listening to the radio, John fell asleep.

나. ‘이유’ 혹은 ‘환경’ 자유 부가어

Still recovering from the recent surgery, Joanna did not want to go on the trip.

다. ‘양보’ 혹은 ‘환경’ 자유 부가어

Suffering from a severe cold, John helped other people to move.

(Kim, M. -J., 2008, pp. 114-115)

- (17) 인접 관계절

가. ‘환경/시간’ 관계절

ngajulu-rlu	lpa-rna	karli	jarnu-rnu,
나-능력	조동사-일인칭.단수	부메랑	다듬다.과거
kuja-Ø-npa	ya-nu-rnu	nyuntu.	
보문자-조동사-이인칭.단수	걷다.과거.여기	너	

‘네가 왔을 때 나는 부메랑을 다듬고 있었다.’

나. ‘양보’ 관계절

kutja-ka-lu yuwarli nganti-rni jurlpu panu-kari-rli
보문자-조동사 등지 짓다-비과거 새 많은-다른-능력
kankarlu watiya-rla, marna-ngka ka-nyanu
위 나무-처격 spinifex-처격 조동사-재귀사
jinjiwarnu-rulu nganti-rni yujuku-pardu.
jinjiwarnu-능력 짓다-비과거 은신처-지소사
‘다른 많은 새들은 나무에 등지를 짓는데, jinjiwarnu는 spinifex 풀 안에
작은 은신처를 자신에게 지어준다.’

다. ‘이유’ 관계절

nyampu kujja-ka-rna junma marda-rni
그의 보문자/조동사-일인칭.단수 칼 가지다-비과거
ngajulu-rlu, ngula
일인칭-능력그래서
kapu-rna-ju
조동사-일인칭.단수(주어)-일인칭.단수(목적어)
ngajulu-rlu-lku paji-rni.
나-능력-지금/그 당시의 자르다-비과거
‘나는 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내 자신을 벨 것이다.’
(M.-J. Kim, 2008, p. 115)

Kim, M. -J.(2008)은 명확한 연결자 없이 두 절이 연결된 왈비리어의 인접 관계절과 영어의 자유 부가어 구성의 두 절 사이에서도 ‘시간/환경’, ‘이유’, ‘양보’의 의미 관계가 발견되는 것에 주목해 해당 절 연결 의미를 내포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절 연결 의미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서 ‘시간/환경’,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것에 대해 두 절이 명확한 연결자(overt connective) 없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절 연결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더불어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문법적 조건은 명확한 연결자가 없을 때 두 절을 연결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절 매개 형식으로 보았다.

2.2. 남은 문제들

본고는 선행연구를 정교하게 다듬고 통찰력 있게 발전시킨 Kim, M. -J.(2008)의 주요

논의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특별히,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제약이 있음과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된다는 논의에 동의한다.

본고가 Kim, M. -J.(2008)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과 주절에 대해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를 보이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제약이 생기는 이유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둘째, 본고는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것을 ‘직접 지식-반응’의 관계로 설명한다. 즉, 내핵관계절은 주절 주어가 획득한 직접 지식을 기술하는데 주절 주어가 직접 지식에 대해 화용론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시간’ 및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 및 ‘양보’의 의미가 상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본고가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관찰되는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를 내핵관계절의 내재적 특성으로 보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점에서는 Kuroda(1976)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셋째, 본고는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이는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경우 일관된 진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과 관련하여,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은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제약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문 (18)과 (19)는 ‘-은 것이’로 표시된 예에도 해당 예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18) 가. 사과가 빨갭게 익은 것이 나무에 달려 있다.

나. *사과가 빨간 것이 나무에 달려 있다.

(19) 가.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것이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

나. *아이가 귀여운 것이 잠을 자고 있다.

내핵관계절에 장면 층위 술어가 나타난 (18가)와 (19가)는 정문으로, 내핵관계절에 개체 층위 술어가 나타난 (18나)와 (19나)는 비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의 경우, 내핵관계절에 개체 층위 술어가 나타나는데 해당 예들은 비문이 되지 않는다.

(20) 가. 아이가 귀여운 것이 노래도 잘 부른다.

나. 아이가 어린 것이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다. 철수가 학생인 것이 공부를 안 한다.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을 이해하기 위해 문숙영(2012)을 참고

할 수 있다. 문숙영(2012, p. 50)에서는 내핵관계절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비해 제약이 많음을 언급하였다. 아래 예문에서 내핵관계절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21가)의 경우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20나)와 비교해 수용성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 가. ?아줌마가 일하는 것이 얼음물을 가져다주었다.

나. 자기가 내쫓다고 남자가 우기는 것을 말했다.

(문숙영, 2012, p. 50)

(20)과 같은 예의 존재가 말해 주듯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은 그 형성 제약을 일관되게 서술하기 어렵다. 동시에 (21가)와 (21나)의 수용성이 다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보다 더 제약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두 가지 가정을 하게 한다. 첫째, (20)의 예는 내핵관계절이 아닐 수 있다. 둘째,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사이의 문법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먼저, (20)에 제시된 예에서 ‘-은 것이’로 표시된 부분은 내핵관계절이 아닌 부사절일 가능성이 있다. (20)에 제시된 예들의 경우 두 절 사이에 공유 논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핵관계절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20가)는 두 절 사이에 첨가의 절 연결 의미가 (20나, 다)는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 있으므로 부사절로 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과 달리 아래 (22)의 예는 부사절로만 식별된다.

(22) 짜증 부린다고 타인이 대신 해 주는 것도 아닌 것을 굳이 짜증 부려서 (이삼형 외, 문어)

(22)의 경우 두 절 사이에 공유 논항이 없고, 두 절 사이에는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의 예를 내핵관계절로 식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바로, ‘-은 것이’로 표시된 절이 내핵관계절로 식별되는 경우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것이 자연 발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위의 (18가)의 경우 두 절 사이에 ‘시간’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고, (19가)와 (20나, 다)의 경우 두 절 사이에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20가)의 경우 ‘첨가’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예들은 연구를 위해 고안된 작례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검색 엔진 및 말뭉치에서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이 절 연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래 (23)의 예만이 발견되었다.¹²⁾

(23) 딸이 하나 있던 것이 궁녀로 뽑혀 후궁이 되고 이윽고 창빈으로 봉해지매
(이삼형 외, 문어)

(23)의 예에서 딸이 하나 있다는 사건과 딸이 궁녀로 뽑혀 후궁이 되었다는 사건 사이에는 양보의 의미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연 발화에서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절 연결 의미가 잘 관찰되지 않음을 상기할 때 (20)의 예는 두 절 사이에 공유 논항이 상정되지만 부사절로 쓰인 예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비해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이 더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과 그 형성 제약을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것은 문법화의 정도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사이의 문법화 정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예들 간에도 문법화의 진행 속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은 것이’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경우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비해 해당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 간에 점진적인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범주 속 예들 간의 동질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성 제약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어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존재하는 형성 제약을 통해 내핵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부사절로 확장되는 기제를 보이고자 한다.

3. 내핵관계절의 부사절로의 의미 확장

3.1. 상호작용 제약

‘-은 것을’로 연결된 두 절의 경우, 주어와 내핵관계절에 제시된 개체 간에 의도적인 운동성 이동을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내핵관계절의 의미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를 상호작용 제약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앞서 Kim, M. -J.(2008)에서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하는 제약이 있음을 제시

12) 한글 간찰 자료에서 관찰되는 아래의 예의 경우 ‘-은 것이’로 표시된 절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6) 강해서 온 조기는 보내노라 흐 저시 사람이 두 번 오되 아니 와서니 닛고 아니 가져 온 동 중간의 일흔가 고이 흐다 《은진 송씨 송규렴가 한글 간찰 <先札> 9, 60-61면》 (1699년)
(강화에서 온 조기는 보내겠다고 한 것이 사람이 두 번 왔는데 (조기가) 오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닛고 가져오지 않은 것인지 중간에 잃어버렸는지 이상하다.) (최종원, 2018, p. 138)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약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내포절과 주절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다.¹³⁾ 2.2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시적 상태는 어휘상에 상관없이 진행 중인 상태(in-progress state), 그리고 성취동사와 완성동사의 목표 상태(target state)를 가리킨다. 내핵관계절이 진행 중인 상태(in-progress)를 가리킬 때 주절 주어는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모든 개체나 사물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반면, 내핵관계절이 목표 상태(target state)를 가리킬 때 주절 주어는 목표 상태(target state)에 있는 개체나 사물과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즉,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제약은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는 제약의 예외는 아래와 같다.

(24) 가. *철수는 영희가 아픈 것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나. 철수는 배가 아픈 것을 옮겨줘었다.

(24)에서 ‘아프다’는 형용사로 진행 중인 상태도 목표 상태도 나타내지 않으며 따라서 (24가)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24가)와 달리 (24나)는 비문이 되지 않는데 이는 ‘아프다’가 장면층위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이며, (24가)와 달리 (24나)의 경우 내핵관계절이 주절 주어의 내성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2.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직접 지식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이 직접 지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경우 참여자가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지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두 절 사이의 상호작용의 주체인 주절 주어가 종속절에 기술된 상황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절의 주어가 상황을 체험하여 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세계의 언어 중에는 화자가 체험하여 얻은 지식을 나타내는 문법표시가 있는 경우도

13)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예문 중 아래 (7)에 제시된 형태와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는 ‘-은 것들’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경우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야 하는 제약이 대체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 -(으)려고 하는 것, -(으)려는 것, -아 있는 것, -고 있는 것, -(으)려고 하는 것, -(으)려는 것, -아 있는 것, -고 있는 것.

14) 한국어에서 증거성의 주체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 연구의 예로 정인아(2016)를 참고할 수 있다. 정인아(2016)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자’가 화자, 청자, 후행절의 주어, 및 제3자의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있는데, 이는 ‘참여’(participatory [혹은 ‘performative’, ‘personal agency’, ‘contrastive’])로 불린다.¹⁵⁾ Plungian(2010, p. 34)에 따르면 증거성 값 ‘참여(participatory)’(혹은 ‘performative’, ‘personal agency’, ‘contrastive’) 표시는 화자 자신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의 참여자인 경우에 사용된다. 화자가 해당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목격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 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각’(visual) 혹은 ‘감각’(sensory) 표시와 구별되는 ‘참여’ 증거성 표시는 the Pomo languages에서 주로 발견되지만(Oswalt, 1986; Mithun, 1999), Okasapmin, 그리고 다른 많은 New Guinean languages에서도 발견된다(Loughnane, 2007). ‘참여’는 화자가 그 상황 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성(endophoric)’과 유사하다. ‘내성’은 문장에 표현되는 명제가 지각에 의해서 알아낼 수 없는 것(예컨대 화자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인 경우에 주로 쓰인다(박진호, 2011, p. 5; Park, 2020, pp. 399-400).¹⁶⁾ ‘참여’와 ‘내성’이라는 직접 접근(direct access)의 증거성 값은 상황을 관찰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성’과 달리 ‘참여’는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나타날 가능성이 주어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와 나타날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증거성 값으로 볼 수 있다(Plungian, 2010, p. 34).

Plungian(2010)은 ‘참여’를 포함하여 증거성 값(evidential values)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직접적/개인적[=증명된, 목격된, 일차적, 확증된]

- 참여/내성;<일반적인 지식>
- 시각(하위 범주 존재)
- 비-시각[=감각]

간접적/개인적

- 추론(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 추정(그럴듯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적 지식>

간접적/비-개인적[=이차적]

- 전언(하위 범주 존재)

그림 1. 증거성 값(Plungian, 2010, p. 37)

위의 도식에서 ‘참여’와 ‘내성’ 값은 주어진 상황에 화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얻은

15) ‘참여’를 증거성의 의미 값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자기조응성(egophoricity)과 증거성의 관계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참여’에 해당하는 표지를 증거성 표지로 보기도 하고 자기지향성 표지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loyd, Norcliffe, & San Roque(2018)을 참고할 수 있다.

16) ‘내성(endophoric)’은 Claude Hagège가 Tournadre(1996) 등에 나타난 언어의 증거성 체계를 기술하기 위해 제시한 용어이다(Plungian, 2010, pp. 33-34).

사실 혹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개인적 지각에 기반을 두고 얻은 사실들을 가리킨다 (Plungian, 2010, p. 37).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으로 이해될 때, 이 지식은 ‘참여’와 ‘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한국어의 경우 참여와 내성이 동일한 표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25)에 제시된 예 중 (25가-다)는 내핵관계절의 예로 간주될 수 있다. 특별히, 주절 주어가 내핵관계절에 제시된 상황에 직접 참여하거나 개인적 지각을 통해 얻은 직접 지식이 내핵관계절에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5) 가. 철수는 영희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 철수는 영희가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

다. 철수는 배가 아픈 것을 움켜 쥐었다.

라. 철수는 삼성이 갤럭시노트Ⅲ 만든 것을 싫어한다.

마. 철수는 숙제 하던 것을 멈추었다.

반면, (25라, 마)의 경우, ‘-은 것’으로 표시된 절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리적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는 (25라, 마)의 경우 ‘-은 것’으로 표시된 절이 내핵관계절인지 분명하지 않다.¹⁷⁾

3.3. ‘직접 지식-반응’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수적 의미

3.3.1. ‘시간’, ‘이유’, ‘양보’의 의미 도출

‘-은 것’으로 표시된 절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을 나타내고, 이어지는 절은 해당 지식에 대한 주절 주어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두 절 사이에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 연결 의미는 ‘-은 것’으로 표시된 절의 본유적 의미라기보다 직접 지식에 대한 주절 주어의 반응이 화용적으로 기대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절 주어가 자신이 얻은 직접 지식에 대해 화용적으로 기대되는 반응을 하는 경우, ‘시간’ 혹은 ‘이유’의 의미가 도출되며, 화용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경우 ‘시간’ 혹은 ‘양보’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17) 문숙영(2017, pp. 67-68)에서는 (25라, 마)와 같이 경우에 따라 내핵관계절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의 존재는 내핵관계절의 해석이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론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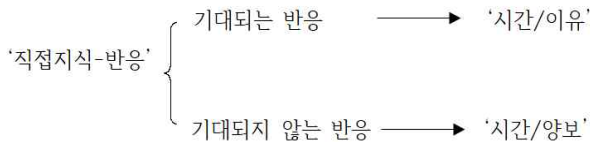


그림 2. '직접 지식-반응'으로부터 '시간', '이유', '양보'의 의미가 산출되는 과정

위 도식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예문 (26)을 살펴볼 수 있다.

- (26) 가.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의 상태라는 것이었다. (21세종말뭉치, 문어)
- 나. 아귀 같은 인생들이 18평 다세대주택 안에서 서러워하는 것을 버려둔 채 나는 집을 나왔다. (21세종말뭉치, 문어)

(26가)의 경우,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사건과 경찰이 그 청년을 병원에 옮긴 사건 사이에는 '시간' 혹은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병원에 옮긴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6나)의 경우,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버려 두고 나간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를 벗어나는 반응으로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 혹은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 있어 보인다.¹⁸⁾

본고는 3.2에서 '은 것들'로 표시된 절이 나타내는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이 '참여' 및 '내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은 것들'과 주절 사이에 관찰되는 절 연결 의미를 '참여-반응'과 '내성-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은 것들'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은 것들'과 주절 사이에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예를 보이며 이러한 예는 '은 것들'의 문법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할 것이다.

3.3.2. '참여-반응'의 예

'은 것들'로 표시된 절이 주절 주어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 얻게 된 지식을 제시하고

18)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 사이에 위계적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다. 가령 (26나)의 경우, 종속절과 주절 사이에 '시간'보다는 '양보'의 의미가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26가)는 '시간'과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확률로 상정될 수 있어 보인다.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상정되는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 사이에 위계적 구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무엇이 상위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해 볼 것을 기약한다.

주절이 이에 대한 주절 주어의 반응을 나타내는 예는 (27)과 같다.

(27) 가. 의례의 돈이 저한테 온 것을 제가 돌려보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삼형 외, 구어)

나. 성근이가 따라오려 하는 것을 떼어놓고 왔어요. (이삼형 외, 문어)

다. 거기에는 구레이(구렁이) 큰 놈이 암뱀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었다. (21세종말뭉치, 문어)

라.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의 상태라는 것이었다. (21세종말뭉치, 문어)

마. 어제 봉단이가 냇가에 있는 것을 불러 보내셨는지? (이삼형 외, 문어)

각 예문에서 ‘-은 것을’로 표시된 절과 주절 사이에는 ‘시간’, ‘이유’, ‘양보’의 의미가 관찰되는데, ‘-은 것을’로 표시된 절에 제시된 직접 지식에 대해 화용적으로 기대되는 반응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간’, ‘이유’ 혹은 ‘시간’,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 있다. 가령, (27가)의 경우 의례의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돌려 보내는 것이 화용적으로 더 기대되는 반응으로 여겨지는 경우, 의례의 돈이 들어온 사건과 해당 돈을 돌려보낸 사건 사이에는 ‘시간’ 혹은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된다. (27나)와 같이 누군가가 따라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따라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화용적으로 더 기대되는 반응으로 여겨지는 경우, 성근이가 따라오려 하는데 화자가 성근이를 떼어놓고 온 것은 화용적으로 기대되는 반응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 혹은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27다-마)의 경우도 화용적으로 더 기대되는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간’, ‘이유’, ‘양보’의 의미가 두 절 사이에 상정될 수 있다.

3.3.3. ‘내성-반응’의 예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이 주절 주어의 내성을 나타내고 주절이 이에 대한 주절 주어의 반응을 나타내는 예는 (28)과 같다.

(28) 가. 영신은 속에서 불뎡이가 치솟아오르는 것을 일단은 꾸욱 눌렀다. (이삼형 외, 문어)

나. 식탁을 보다가 울컥 울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이삼형 외, 문어)

다. 하마터면 그런 욕이 입 밖에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러 참는 백선결이었다. (이삼형 외, 문어)

- 라. 아베르노는 저절로 욕설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눌러참고, 위엄있게 말했다. (이삼형 외, 문어)
- 마. 어머님께서는 진땀을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정신을 가다듬어 아이가 나오려는 것을 스스로 밀어넣어 막고 (21세종말뭉치, 문어)
- 바. 봉애는 옷핀으로 찌른 허리치마에 가려진 유방이 삐적삐적 밀려나오는 것을 살며시 소매로 가리면서 단정하게 앉아 (21세종말뭉치, 문어)

각 예문에서 ‘-은 것들’로 표시된 절과 주절 사이에는 ‘시간’, ‘이유’, ‘양보’의 의미가 관찰되는데, (28가-마)의 경우 ‘시간’ 혹은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28바)의 경우 ‘시간’ 혹은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된다.

3.3.4. ‘직접 지식’을 나타내지 않는 예

(29)에 제시된 예들은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이유’, ‘시간’, ‘양보’의 부수적 의미도 관찰되지 않는다.

- (29) 가. 울무 뿌리 말린 것을 잘 씻은 뒤 달여서 오랫동안 차처럼 마시면 특효가 있다. (이삼형 외, 문어)
- 나. 옛날 신문을 스크랩해놓은 것을 다시 읽기도 했다. (이삼형 외, 문어)
- 다. 일반 치아에 보철을 하는 것이 망가졌을 때 수리하거나 새로 하시듯이,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삼형 외, 구어)
- 라. 그러니까 의료비가 들어간 거 정부가 일단 돈을 내주겠다. 그겁니까? (이삼형 외, 구어)
- 마.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는 100억 달러 이상 그리스에 돈을 꿔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2~3억 달러 밖에 없습니다. (이삼형 외, 구어)

아래 (30)에 제시된 예들도 내핵관계절에 기술된 내용이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9)와 달리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이유’, ‘시간’, ‘양보’의 부수적 의미가 관찰된다.

- (30) 가. 승상이 나에게 5만의 군사를 주신 것은 원술이 형 원소에게 옥새를 바치려가는 것을 중도에서 치기 위함ियो. (이삼형 외, 문어)
- 나. 방씨 아저씨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인혜법사가 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죠. (이삼형 외, 문어)
- 다. 한국대표팀은 전반 초반에 볼을 줄 것을 주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경기

흐름을 내렸습니다. (이삼형 외, 문어)

라. 그런데 결국 중국이 그렇게 세계의 굴뚝이 된 건, 자기 나라, 선진국의 자기 나라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중국 쪽으로 한꺼번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삼형 외, 구어)

마. 이학년이 노는 계집의 몸에서 난 것을 그 아버지가 찾지 아니하여 모족을 따라서 천인이 된 것과 (이삼형 외, 문어)

(30)에 제시된 예들은 내핵관계절과 주절 사이에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것이 ‘직접 지식-반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 본고의 반례이다. 이러한 반례들은 ‘은 것을’의 문법화가 점차적으로 중간 단계의 예들을 생산하며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0)의 예들의 경우 공유 논항을 가지므로 내핵관계절로 식별될 수 있다.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이 주절에 대해 ‘이유’와 ‘양보’의 의미로 연결되는 경우,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과 형식적·의미적 유사성을 보여 두 구성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공유 논항의 유무에 따라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을 내핵관계절과 부사절을 나누었으나 ‘은 것을’로 표시된 절에 공유 논항이 있으며 절 연결 의미가 나타나는 (30)과 같은 예의 경우 그 정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30)의 예들은 내핵관계절과 부사절 사이에 있는 점진적 변이의 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3.4. 형태적 경제성과 의미적 유연성

Kim, M. -J.(2008, p. 117)은 내핵관계절을 문법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구성으로 보고 내핵관계절이 문법화를 규제하는 두 원리 즉, 경제성에 기반한 원리 및 인지적 처리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언급한다. 즉, 잉여성을 피하라는 경제성 원리를 따라 절 연결자와 같은 형태를 동반하지 않고, 동시에 두 절 사이의 의미가 가시적이 되도록 가능한 절 연결 의미가 제한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두 절의 사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 때 내핵관계절을 통해 두 절을 연결함으로써 사용해야 하는 형태를 줄이고 의미는 유연하게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태적 경제성과 의미적 유연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구성은 영어, 라틴어, Ngizim, Luiseño, Yaqui, Godié와 같은 언어에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예들은 Thomposn, Longacre, & Hwang(2007, pp. 264-266)에서 절대절(absolutive clauses)로 다루어진 바 있다.¹⁹⁾ Thomposn, Longacre, & Hwang(2007)의 절대절(absolutive clauses)은 아래의 특징을 포함하는 종속절 유형을 가리킨다.

19) 영어의 예는 Stump(1985)에서 the free adjunct construction으로 명명되었다(2.1 참고).

- (31) 가. 절이 어떤 식으로든 종속절로 표시되어 있음.
 나.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지가 없음.
 다.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는 화용적, 언어적 맥락에서 추론됨.

(31가)와 관련하여 절대절이 절을 표시하는 일반적 방식은 명사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일반적 종속 표지(a general subordinating morpheme)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는 Nigizim의 예인 (32)에서, 후자의 예는 Godié의 예인 (33)에서 살펴볼 수 있다

- (32) Kalaktayi-gaa ná
 돌아오다-일인칭단수.속격 일인칭단수.완료
 tɔfə-n-gaa ii mənduwa
 들어가다(완료)-전체성-연관²⁰ 향격 집
 ‘돌아와서, 나는 집에 들어갔다(Having returned, I entered the house)’
 (Thomposn, Longacre, & Hwang 2007, p. 265)

- (33) ɔ yi mɔ Dakpaduu' nʌ gbesi
 그 돌아왔다 처격 Dakpadu 종속자 밋들
 ɔ tla a
 그 놓다 최근
 ‘Dakpadu에 와서, 밋 몇 개를 설치했다(Having come to Dakpadu, he set some traps)’(Thomposn, Longacre, & Hwang, 2007, p. 266)

Greenough et al.(1903)이 제시한 라틴어 문법에서는 절대절이 대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Thomposn, Longacre, & Hwang, 2007, p. 266).

- (34) 가. 시간을 나타내는 절(a temporal clause)
 나. 이유를 나타내는 절(a causal clause)
 다. 양보를 나타내는 절(a concessive clause)
 라. 조건을 나타내는 절(a conditional clause)
 마. 상황을 동반하는 절(a clause of accompanying circumstance)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의 경우, (31)에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며, 절대절의 전형적 표지 유형 중 하나인 명사화 전략으로 인코딩되고, ‘시간’, ‘이유’, ‘양보’의 절

20) Associative.

연결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절대절의 한 예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

지금까지 본고는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을 살펴보고 내핵관계절의 의미·기능이 부사절로 확장되는 예들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부사절로 쓰인 ‘-은 것이’와 ‘-은 것을’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는 ‘이유’, ‘양보’, ‘상세화’의 절 연결 의미가 관찰되는 예를 보인다.²¹⁾ 특별히,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되는 예들은 직접 지식을 근거로 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내성’을 기반으로 한 것과 ‘지각’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본고는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이 부사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을 검토 함으로써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이 내핵관계절 및 부사절 모두로 해석되는 경우와 부사절로만 해석되는 경우 사이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 것이’와 ‘-은 것을’이 문법화되어 표시하는 의미·기능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다음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4장에서 이어질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은 것이’와 ‘-을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 구성에서 관찰되는 절 연결 의미

절 연결 의미		형태 표시	예문
이유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된 이유	내성 ‘-은 것이’	시간이 갈수록 열이 나고 온몸이 쭈시는 것이 감기가 걸려도 단단히 걸린 듯. (구글 검색)
		지각 ‘-은 것이’	이제 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완전한 가을이네요. (구글 검색)
	증거성(직접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	‘-은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입니다. (이삼형 외, 구어)
		‘-은 것을’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삼형 외, 구어)
양보		‘-은 것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동한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어 버렸구나. (이삼형 외, 문어)
		‘-은 것을’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삼형 외, 구어)
상세화		‘-은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삼형 외, 구어)

21) 전혜영(2005)에서는 ‘-은/는 것이’로 표시된 종속절이 주절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 심리, 태도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4.1. 이유

4.1.1. 증거성과 관련된 이유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증거성과 관련된 이유가 관찰되는 경우는 ‘은 것이’로 표시된 예만 발견되었다.

4.1.1.1. ‘내성’에 근거한 이유 제시

‘은 것이’로 표시된 부사절이 ‘내성’에 근거한 이유를 나타내는 예는 (35)와 같다.

(35) 가. 시간이 갈수록 열이 나고 온몸이 쭈시는 것이 감기가 걸려도 단단히
 결린 듯.

나. 기침이 나오려는 것이 감기가 오려나 보다.
 (구글 검색)

(35가)의 경우, 열이 나고 몸이 쭈시는 ‘내성’을 근거로 감기에 걸렸음을 추측하고 있고, (35나)의 경우 기침이 나려고 하는 ‘내성’을 근거로 감기에 걸릴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4.1.1.2. ‘지각’에 근거한 이유 제시

‘은 것이’로 표시된 부사절이 ‘지각’에 근거한 이유를 나타내는 예는 (36)과 같다.

(36) 가. 이제 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완전한 가을이네요. (시각)

나.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것이 숨 쉬기도 곤란한 모양이다. (시각)

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되었어
 요. (촉각)

라. 오전부터 더운 바람이 부는 것이 오늘은 정말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촉각)

마. 바람에 비린내가 진득하게 묻어 있는 것이 비가 올 징조다. (후각)

바. 소나무향이 코를 찌르는 것이 매우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 (후각)

사. 어디서 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제 비가 멈추려나 봐요. (청각)

아. 멀리 세트장 안에서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청각)

자. 첫날 끓여 준 된장찌개도 감칠맛이 나는 것이 정말 맛이 있었다. (미각)

차. 씹싸래하고 툇 쏘는 것이 먹을 만했다. (미각/통각)
(구글 검색)

(36가, 나)는 ‘지각’ 중 ‘시각’을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고, (36나, 다)는 ‘촉각’을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36마, 바)는 ‘후각’에, (36사, 아)는 ‘청각’에, (36자, 차)는 ‘미각’ 혹은 ‘통각’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원(2018, pp. 127-129)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이 [[-은 것이] [후행절]]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은 것이’로 표시된 절과 주절이 ‘어떤 추측이나 판단의 근거-추측/판단’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37) 먹구름이 낀 것이(=계), 비가 올 것 같아. (최종원, 2018, p. 127)

본고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37)의 예도 ‘-은 것이’로 표시된 절이 ‘지각’에 근거한 이유를 나타내는 예로 분류될 수 있다.

4.1.2. 증거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증거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의 절 연결 의미 관계가 나타나는 예는 (38)과 같다.

(38) 가. 인명을 가볍게 보는 것이 초개만도 못하다. (이삼형 외, 문어)

나.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삼형 외, 구어)

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입니다. (이삼형 외, 구어)

특별히, (38가, 나)는 앞 절에 서술된 내용이 뒷 절에 서술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하는 ‘순행 이유’의 예이고, (38다)의 경우 뒷 절에 서술된 내용이 앞 절에 서술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하는 ‘역행 이유’의 예이다.

(38다)와 같이 뒷 절에 서술된 내용이 앞 절에 서술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하는 예는 최윤지(2017)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최윤지(2017)는 구어에 나타나는 분열문의 준-범주인 열린 분열문을 대상으로 하여 관형사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정보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국면들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아래 (39)와 같은 예를 정규적인 분열문과 형식적·의미적 관련성을 가지는 열린 분열문으로 보고 열린 분열문을 (39가)와 같이 관형사절이 전제를 나타내는 유형과 (39나)와 같이 단언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 (39) 가. 아 공기가 안 좋은 게, 북한산에 막혀서, 대기 순환이 안된대.
 나. 그건, 그런 거랑 조금 틀린 게, 그 냄새만 맡으면 그~ 굉장히 좋아,
 (최윤지, 2017, pp. 99-100)

최윤지(2017, p. 122)는 (39나)와 같은 단언적 열린 분열문의 경우 분열된 성분으로 나타난 명제가 항상 관형사절 명제에 대하여 ‘이유’나 ‘배경’을 나타내는 부가어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39가, 나) 모두 두 절 사이에 ‘이유’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되는 것으로 본다.

‘은 것이’가 연결하는 두 절이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한글 간찰 자료에서도 발견되는데 해당 예는 아래와 같다.

- (40) 세상 인심 미들 길 업는거시 순칠 갈 저게 빅목 혼 필 스셔 보니라 호엿
 습더니 당목 여달 주로 식척호엿다니 밍낭호옵 《전주 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1896년)
 (세상 인심 믿을 수 없는 것이, 순칠이가 갈 적에 백목 한 필을 사서 보내
 라 하였더니, 당목 여덟 자로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니 터무니 없소)
 (최종원, 2018, p. 138)

(40)의 예는 최종원(2018)에서 내핵관계절의 예로 제시된 것인데 ‘은 것이’로 연결된 두 절 사이에 공유 논항이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뒷절이 앞절의 이유를 제시하는 역행 이유의 예로 간주한다.

4.2. 양보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양보’의 절 연결 의미가 관철되는 예는 (41)과 같다.

- (41) 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동한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어 버렸구나.
 (이삼형 외, 문어)
 나. 모양을 낸다는 게 되레 꼴만 더 우습게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말 (이삼형 외, 문어)
 다. 조금 부패한 자리를 수술로 거두어 내면 도려내면 끝날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아, 완전 환자 하나가 사망에 이르고
 또는 어떻게 될까요?(이삼형 외, 구어)
 라.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삼형 외, 구어)

(41가, 나)는 ‘-은 것이’로 표시된 절이, (41다, 라)는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이 주절과 ‘양보’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절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최종원(2018)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42)는 현대 한국어의 예이고 (43)은 한글 간찰 자료의 예이다.

(42) 그렇게 진작 해 두었으면 편했을 것을(=걸), 늘 마감에 쫓긴단 말이지.
(최종원, 2018, p. 125)

(43) 이실 겨규는 꿈도 아니코 가라 하면 저문 사람도 못 견디는 거시 내가
어니 어흐로 이시리 하니 못 보내거니와 그 녀니 안죽 와서 니 누겨 현마 엇디리
비러 브려라. 《순천김씨언간 71》 (16세기)
(있을 계교는 꿈도 아니하고 가라 하면 어린 사람도 못 견디는 것이 내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 있겠는가 아니 보내지 못하거니와 그 년이 이제 왔으
니 마음을 녹여 설마 어찌하겠느냐? 빌려 부려라.)(최종원, 2018, p. 138)

4.3. 상세화

본고에서는 절 연결 의미 중 하나로 ‘상세화(elaboration)’를 제시한다. 이는 Dixon(2009)의 범-언어적 절 연결 의미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Lee(2017)에서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중 하나로 ‘상세화’를 제시한 바 있다. ‘상세화’는 한 절에서 제시된 내용이 이어진 절에서 상세화되어 나타나는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Dixon(2009)에서 제시된 예는 아래와 같다.

(44) 가. John telephoned, he invited us to dinner.
나. Mary climbed the mountain, she climbed right to the top.
다. John has gone out, he's gone to the shop for some apples.
(Dixon, 2009, p. 2)

아래는 ‘상세화’로 볼 수 있는 한국어의 예로 Lee(2017)는 (45가)는 사건이 상세화되는 예로, (47나)는 명사구가 상세화되는 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5) 가. 존은 나갔는데 사과를 사러 갔다.
나. 지난 주에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산이 정말 아름다웠다. (Lee,
2017, p. 859)

본고에서 다룬 예 중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상세화’의 절 연결 의미가 상정되는 경우는 (46)과 같이 ‘-은 것이’로 표시된 예만 관찰되었다.

(46) 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 그게 커버린 게 일단 계약만 놓고도 이중계약이 문제가 돼서 협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자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이삼형 외, 구어)

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삼형 외, 구어)

다. 두 여인은 이신산 마을을 지나 이신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삼나무와 등나무가 울창했고 작은 새싹들이 돌아나 파르스름한 것이 제법 봄기운이 감돌았다. (이삼형 외, 문어)

(46가)의 경우, ‘-은 것이’로 표시된 절에 상황이 너무 커버렸음을 밝힌 후 이어지는 절에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46나)의 경우도 ‘-은 것이’로 표시된 절에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함을 간단히 밝힌 후 이어지는 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화해 밝히고 있다. (46가, 나)와 달리 (46다)의 경우, ‘-은 것이’로 표시된 절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어지는 절이 이를 간략히 제시해 주고 있다.²²⁾

5.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부사절은 산발적으로나마 직접 지식의 의미를 드러낸다. 본고는 이러한 직접 지식의 의미가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이 유사성에 기반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련성은 문법화 및 강제(coersion)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세 구문 중 ‘-은 것을’로 표시된 지각동사 구문과 내핵관계절의 관련성을 강제 현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은 것이’와 ‘-은 것을’이 표시하는 종속절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보문절, 관계절, 부사절의 예 중에는 인코딩 전략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특별히,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종속절이 화자나 주절 주어의 직접 지식을 나타내는 예인데 지각동사 구문, 내핵관계절, 부사절에서 이러한 직접 지식이 관찰된다. 각각의 구성이 나타낼 수 있는 직접 지식의 종류는 (47)과 같다.

22) (46다)의 경우 두 절이 ‘이유’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표 2. ‘-은 것’과 ‘-은 것을’이 표시하는 종속절의 종류 및 직접 지식

하위 분류			예문	
보문절	지각동사 외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구글 검색) 이황과 두향의 애절한 이야기는 조금의 사실에 많은 이야기가 덧붙은 것이 분명하다. (구글 검색)	
	지각동사 구문	직접 지식	내성	모건은 어깨에 닿은 손길이 차가운 것을 느꼈다. (구글 검색)
		지각		오후 6경 남편이 외출 후 귀가해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구글 검색)
				옷장의 가장 어둡고 먼지가 많은 곳으로부터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구글 검색)
	종속절	관계절	직접 지식	내성
참여				어머님께서서는 진땀을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정신을 가다듬어 아이가 나오려는 것을 스스로 밀어붙여 막고 (21세종말뭉치, 문어)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의 상태라는 것이었다. (21세종말뭉치, 문어)
지각				시간이 갈수록 열이 나고 온몸이 쭈시는 것이 감기가 걸려도 단단히 걸린 듯. (구글 검색) 이제 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완전한 가을이네요. (구글 검색)
이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범과 주범 모두 사실은 연령대가 많지 않단 말씀입니다. (이삼형 외, 구어)	
부사절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을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삼형 외, 구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동한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어 버렸구나. (이삼형 외, 문어)
	양보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삼형 외, 구어)	
상세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화는 토털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삼형 외, 구어)	

- (47) 가. 지각동사 구문: 직접 지식(내성 및 지각)
 나. 내핵관계절 중 일부: 직접 지식(내성 및 참여)
 다. 부사절 중 일부: 직접 지식(내성 및 지각)

직접 지식이 관찰되는 지각동사 구문, 내핵관계절 및 부사절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은 문법화 및 강제(coersion)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세 구문 중 ‘-은 것들’로 표시된 지각동사 구문과 내핵관계절의 관련성을 강제 현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48)의 예는 Goldberg(1995)에서 동사에 담긴 정보만으로 논항 구조를 예측할 없음을 보여 주는 예로 제시되었다.

- (48) 가. John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Goldberg 1995, p. 9)
 나. She smiled herself an upgrade. (Goldberg 2006, p. 6)

(48가)에 제시된 *sneeze*와 (48나)에 제시된 *smile*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로 무언가를 이동시킨다는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문에서 무언가를 이동시키는 사건의 의미가 간취되는 것은 [주어{원인} 동사 목적어{대상} 사격어{도착지}]라는 구문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48)의 예들은 *sneeze*와 *smile*이 이동 유발 구문(the caused-motion construction)에 쓰여 동사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조정되는 일종의 강제(coerc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Goldberg 1995, p. 159, p. 238; Diessel, p. 118, p. 158).

Boas(2003, pp. 260-284)는 이와 같이 한 동사가 자신이 원래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통사 환경에서 사용되는 현상은 ‘개별 어휘에 기반한 유추(item-based analog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사의 혁신적인 쓰임이 특정한 동사 사이의 국지적 유사성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가령, 예문 (49)의 동사 *blow*와 같이 이동 유발 구문에 관습적으로 쓰이는 동사와의 의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50)에 제시된 것과 같은 해당 구문에 관습적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9) John blew the napkin off the table.

- (50) 가. Marc coughed the napkin off the table.
 나. ?Kirsten breathed the napkin off the table
 다. ?Jenn panted the napkin off the table.
 라. ??Julio wh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마. *Katie exhaled the napkin off the table.
 바. *Joshua inhaled the napkin off the table.

이때 (50)에 제시된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low*와의 의미적 유사성이 큰 *cough*의 경우 유발의 의미(혹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구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미적 유사성이 낮은 *breathe*, *pant*는 *cough*에 비해 수용성이 떨어지고, 의미적 유사성이 가장 낮은 *exhale*, *inhale*은 해당 구문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50가-마)에 쓰인 동사들은 모두 공기가 인체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역동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분출되는 공기의 강도라는 미세한 의미 차이에 의해 문장의 수용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한편, *breathe*, *pant*, *wheeze*와 같은 동사들의 경우 아래 (51)에서와 같이 담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더해지면 그 수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1) 가. Kirsten came back from a 5k run and was out of breath. Breathing heavily, she sat down and breathed the napkin off the table.

나. Jen held her breath for 45 seconds. Then she panted the napkin off the table.

다. Julio wheezed the feather off the table.

(Boas 2003, p. 273)

(51가)의 경우 Kirsten이 5킬로미터를 달린 후 거칠게 내쉬는 숨이란 단서가 붙어 있어 해당 공기의 흐름이 식탁 위의 냅킨을 붙어 떨어트리기에 충분하다는 언어 사용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51나)의 경우 Jen이 45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헐떡임이라는 단서가, (51다)의 경우 Julio가 내쉬 가쁜 숨이 식탁에서 떨어지게 만든 것이 깃털처럼 가벼운 물체라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어 해당 문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문 자체에 의미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특정 구문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동사를 요구한다. 셋째, 특정 구문에 출현하는 전형적인 동사가 있고 비전형적인 동사는 전형적인 동사와의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그 수용성이 달라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구문에 전형적이지 않은 동사가 쓰이는 현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을 살펴보면 한국어 내핵관계절 역시 이러한 구문 확장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²³⁾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은 것’으로 표시된 지각동

23) 정연주(2017)에서 특정 구문에 전형적이지 않은 동사가 나타난 예로 제시된 것 중 아래 (8)과 (9)를 살펴볼 수 있다.

(8) 가. 영이는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가웃거렸다.

나. 철수는 한 푼만 달라고 실실거렸다.

사 구문과 내핵관계절은 아래 (52)와 같이 인코딩 전략이 동일하다.

(52) 가. 지각동사 구문

주어 + ‘-은 것’ + ‘보다’류

예) 철수는 영희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나. 내핵관계절

주어 + ‘-은 것’ + ‘붙잡다’류

예) 철수는 영희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

다. 보문절(지각동사 구문 외)

주어 + ‘-은 것’ + 지각동사 외 동사

예) 철수는 영희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형태적 유사성에 더해 ‘-은 것’으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쓰이는 전형적인 동사인 ‘붙잡다’는 내핵관계절에 쓰이는 전형적인 동사인 ‘보다’와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붙잡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보는 행위에서도 요구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요구되는 특성은 앞서 2장과 3장에 걸쳐 살펴본 일시적 상태 혹은 상호작용 제약과 관련된다. ‘-은 것’으로 표시된 내핵관계절과 지각동사 구문에 개체 층위 술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붙잡다’, ‘보다’와 달리 ‘알다’와 같은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붙잡다’는 원래 사태가 아닌 개체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 데 ‘보다’와의 의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것’ 보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가정은 앞서 영어의 이동 유발 구문이 해당 구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사인 *blow*와의 유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전형적인 동사의 출현을 용인한다는 주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지각동사 구문에서 내핵관계절이 발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아이는 자기 혼자 학원에 가야 한다고 울먹었다.

(정연주, 2017, p. 111)

(9) 가. 우리는 (회식에서) 파스타를 메인 메뉴로 먹었다. (정연주, 2017, p. 195)

나. 영이는 (평소에) 술을 음료로 마셨다. (정연주, 2017, p. 195)

다. 나는 영이를 동료로 만난다. (정연주, 2017, p. 197)

(8)의 예문은 비인용동사가 인용동사 자리에 쓰인 예이고, (9)는 비전형적인 동사가 자격 지정 구문 속 서술어 자리에 쓰인 예이다. 정연주(2017)는 (8)과 (9)에서 비전형적인 동사들의 의미가 ‘인용’과 ‘지정’이란 구문 의미에 의해 체계적인 변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가령, (8가)의 ‘가웃거리다’는 ‘말하며 가웃거리다’로, (9가)의 ‘먹다’는 ‘삼아 먹다’로 그 의미가 조정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인용 구문과 자격 지정 구문이 덩어리로 운용되는 언어 기호의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내핵관계절로 간주될 수 있는 예는 중세국어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희 1994, p. 54-56, 문숙영 2012, p. 57).²⁴⁾ 본고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각동사 구문의 동사 자리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사인 ‘보다’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는 ‘붙잡다’와 같은 동사의 경우 지각동사와 같이 ‘것’ 보절을 취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6. 나가기

지금까지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이 내핵관계절과 부사절로 기능하는 예를 중심으로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을 검토하였다. 이어 내핵관계절 및 내핵관계절과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부사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 및 절 연결 의미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고는 내핵관계절 구성으로 식별되는 예들 간 문법화 정도가 다름을 지적하며 해당 범주 내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에 초점을 맞추어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을 상호작용 제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이러한 상호작용 제약으로부터 내핵관계절에 ‘직접 지식’의 증거성 의미가 부차적으로 드러남을 주장하였는데 내핵관계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은 ‘참여’와 ‘내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증거성의 의미는 주절의 내용과 ‘직접 지식-반응’의 짝을 이루며, 해당 반응이 화용적으로 기대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시간’, ‘이유’, ‘양보’의 절 연결 의미로 이해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부사절이 ‘이유’, ‘양보’, ‘상세화’의 의미·기능을 보이는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유’의 절 연결 의미는 ‘내성’, ‘지각’과 같이 증거성과 관련된 ‘이유’ 및 증거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에서 관찰되는 직접 지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해당 구문에서 직접 지식이 관찰되는 이유를 ‘-은 것을’로 표시된 지각동사 구문과 내핵관계절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고는 ‘-은 것이’와 ‘-은 것을’이 문법화되어 표시하는 의미·기능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연구의 예비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종속절 사이의 네트워크 등 본고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주제들은 다른 지면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24) 이현희(1994)에서는 아래 (10)과 같은 예를 핵심 명사(본고의 공유 논항)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관형절 내에 또 하나 존재하는 특이한 관형 구성으로 다룬 바 있다.

(10) 가. ᄃ다가 사르미 이 두 菩薩 일홈 알리 이시면(법7, p. 151)
나. ᄃᆞᆫ 王이 일후미 波塞奇라 호리 나라ᄃᆞᆫ 가져 잇더니(석24, p. 56)

문숙영(2012, p. 57)에서는 (10)의 예들을 내핵관계절로 제시하였는데, (10가)의 경우 선행 명사구 ‘사람’과 ‘이’가 공지시적이고, (10나)의 경우 선행명사구 ‘王’이 ‘호리’의 형식명사 ‘이’와 공지시적이다.

References

- Boas, H. C. (2003). *A constructional approach to resultative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Choi, J. W. (2018).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unique constructions, ‘un/nun kesi’-focusing on data from hankul kanchal- (in Korean). *Collections of Korean Linguistics*, 8, 125-149.
- Choi, Y. J. (2017). Notes on a type of pseudo-clefts in which the adnominal clause expresses a pragmatic assertion (in Korean).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42, 99-134.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1969). The individuation of events, In N. Rescher (Ed.), *Essays in honor of Carl G.* (pp. 216-234). Hempel, Dordrecht: Reidel Publishing.
- Diessel, H. (2019). *The grammar network: How linguistic structure is shaped by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2009). The semantic of clause linking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 A. Y. Aikhenvald (Eds.),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pp. 1-5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loyd, S., Norcliffe, E., & San Roque, L. (Eds.) (2018). *Egophoricity*. Amsterdam: John Benjamins.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 E. (2006). *Construction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ough, J. B., G. L. Kittredge, A. A. Howard, & Benj. L. D'Ooge (Eds.), (1903). *Allen and Greenough's new Latin grammar*. Boston: Ginn.
- Jeon, H. Y. (2005). On the forms of ‘-n gtsi’ in spoken discourse of Korean (in 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46, 255-276.
- Jeong, I. A. (2016). Evidentiality in the Korean connective ending ‘-ca’: Proposing evidentiality of the speaker, the hearer, and the other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Fifth Conference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pp. 183-198, Vol. 5). Seoul.
- Jeong, Y.-J. (2017). *A study on the construction filler ‘Hada’* (in Korean). Seoul: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 Kavalova, Y. (2007). And-parenthetical clauses, In N. Dehé & Y. Kavalova (Eds.), *Parentheticals* (pp. 143-172). Amsterdam: John Benjamins.
- Kim, M.-J. (2008). Relevance of grammar and pragmatics to the relevancy condition. *Language Research*, 44(1), 95-120.
- Kim, Y.-B. (2002).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 541-559.

- Kratzer, A. (1995). Stage level and individual level predicates, In G. N. Carlson &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pp. 125–17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roda, S. Y. (1976). Headed relative clauses in modern Japanese and the relevancy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269–279). Berkeley.
- Lee, J. E. (2017). The -untey clause: non-RC strategy to RC meaning/func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2(4), 827-883.
- Lee, J. E. (2020). A study of the internally-headed RC and its resemblant constructions marked by ‘-un kesi’ and ‘-un kesul’ (in 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95, 167-210.
- Lee, J. E. (2021). Korea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encoding strategy and semantic relevance,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DOI: 10.1080/07268602.2021.1877608
- Lee, J. Y. (2018). A study on the non-canonical adnominal clause in middle Korean (in Korean). *The Journal of Humanities*, 39(2), 13-48.
- Lee, H. H. (1994). *A study of the constructions in middle Korean* (in Korean). Seoul: Shingu Media & Publishing.
- Loughnane, R. (2007). Expanding the typology of evidentiality: The participatory/factual in Oksapm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ALT Conference*. Paris.
- Mithun, M. (1999). *The language of native Nort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 S. Y. (2012). A study on Korean relative clau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Korean). *Gaesin Language and Literature*, 35, 31-68.
- Mun, S. Y. (2017). ‘Ges’ clausal nominalization in the Korean language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in 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84, 33-88.
- Oswalt, R. L. (1986). The evidential system of Kashaya. In C. Wallace & J. Nichols (Eds.),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Vol. 20, pp. 29-45).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Park, J. H. (2011). Grammatical elements containing evidential or mirative components in Korean (in Korean).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15, 1-25.
- Park, J. H. (2020). Evidential and/or mirative components of some verbal endings and periphrastic constructions in Korean, In C. M. Lee and J. H. Park (Eds.), *Evidentials and modals* (pp. 399-411). Leiden: Brill.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Massachusetts: MIT Press.
- Plungian, V. (2010). Types of verbal evidentiality marking: An overview, In G. Diewald & E. Smirnova (Eds.),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pp. 15-58). Berlin: Mouton de Gruyter.
- Stump, G. T. (1985). *The semantic variability of absolute constructions*. Dordrecht: Reidel Publishing.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S. A., Longacre, R., & Hwang, S. J. (2007). Adverbial claus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structure* (Vol. II, pp. 237-3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urnadre, N. (1996). *Comparaison des systèmes médiatifs de quatre dialectes Tibétains: Tibétain Central, Ladakhi, Dzongkha et Amdo*. Louvain: Peeters.

이지은

강사

교양대학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글쓰기센터

E-mail: jieunlee@khu.ac.kr

접수일자 : 2020. 10. 30

수정본 접수 : 2021. 2. 24

게재결정 : 2021. 3. 9